

제 목	국 문	한국과 중국거주 한국인의 상병양상 비교		
	영 문	A Comparative Study on Morbidity Pattern among Koreans Living in Korea and Chin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정순, 김창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 연변의학원 예방의학교실*		
	영 문	Joung Soon Kim, Chang Kil Kim* <i>Department of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i>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an Bian Medical College*</i>		
분 야	역학	발 표 자	김정순(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2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100여년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사망 및 상병양상에 관한 연구중 일부인 면접을 통한 상병조사 결과이다.</p> <p>이주민들과 본토인들의 질병발생 양상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유전소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종 질병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판별해 내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과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상병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종류를 파악한 뒤 셋째, 여러 가지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을 확인하므로서, 넷째, 이들 질병발생 예방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p> <p>2. 연구 방법</p> <p>중국 연변자치구 연변시의 위성농촌인 장백향 내 2개 촌을 선정하여 515가구내 1643명 중 약 94%, 그리고 춘천시 남면과 사북면 농촌 506가구내 1508명 중 98%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훈련된 면접요원(대학원생 및 예방의학 전공의)이 개인별로 면접하였으며 부득이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에 대해서는 주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별도로 보고된 혈압과 혈당측정치, 혈구용적, 그리고 BMI치 등은 필요에 따라 면접 상병조사자료에 일부 참고하였다.</p>				

3. 연구결과

두 지역 인구를 통합한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인구 1000명당 2주간의 상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연변조선족이 월등히 높았다. 즉 남성은 299.9/1000명으로 춘천 거주 남성의 196.3/1000명보다 1.5배 더 높았으며 여성은 연변이 423.0/1000명, 춘천은 258.6/1000명으로 1.6배 더 높았다. 연령별 상병률은 10대가 가장 낮은 이봉(二峯)곡선이었는데, 남녀 모두 30대 이전 젊은 연령층에서 한국농촌주민과 연변농촌주민 상병률에 차이가 컸다. 상세분류 질병별 상병률은 분석중이나 대분류 질병별 차이에서는 연변조선족에서는 감염성질환, 소화기계질환, 순환기계질환, 빈혈이 많았고, 춘천농민들에서는 당뇨병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손상 및 중독이 더 많았다.

4. 고찰

사망자료, 면접 상병조사자료, 그리고 혈압, 혈당, 혈구용적, 신체계측치 등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100여년전에 이주해 간 연변조선족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하면 몇 개 주요 질환의 환경적 위험요인이 확정되어 이들 질병의 예방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